

Title :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He who calls me Abba Father...”*

옛말에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겠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난 떡 안 좋아해 혹은 자다가 일어나 떡 먹으면 소화가 잘 안돼..... 라며 일축해 버릴 것이다. 복음성가 가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고 했다. 그게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답이 길어진다. 대답을 위해서 서론부터 꺼내자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자꾸 파고 들면서 따지는 것 보다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다. 그러니 무조건 어른 말씀은 듣고 봐야 한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악한 사람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진대 하물며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관심있게 공부하고 나면 모든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영화 ‘벤허’의 원작자 루 웰레스는 반 기독교적 인물로서 성경 말씀이 오류라는 것을 밝혀 내기 위해 치밀하게 성경을 뒤져가며 역사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인 차원에서, 증언들을 모아서 연구하면서 ‘벤허’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이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벤허’이다. 책도 책이겠으나 영화 ‘벤허’ 제작 전에 그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고 쓸데 없는 것이며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임을 증명하는 책을 쓰면 대단한 베스트 셀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 하며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성경의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밝히고 인류를 신에게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거짓된 내용을 찾아내기로 했다고 하나 그는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거짓을 발견하기는 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는 마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으며 마침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할수록 그의 양심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진리야!” 라고 부르짖는 것 같았다. 결국 웰레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다.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려고 그의 친구 한 사람과 다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쓴 것이다. 드디어 책의 제 1 장을 쓰고는 제 2 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확실성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사건이 있는 2 주 후 ‘벤허’를 썼다. 작가는 주인공 가족과 주변에 그리스도를 접목시켜 메시아 출현과 십자가의 수난, 성령강림의 사건을 한층 극렬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예수사건이 성경 본문에 의거한 강단에서의 외침보다 한결 진지하게 공감되는 연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작품의 묘미가 있다. 작품에서의 그리스도는 단역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주연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벤허는 단역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다.”(Google 에서 찾아 퍼옴)

그렇다 그분을 알기 위해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을 듣고,읽고,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한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이다. 그렇게 그분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 입에서 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지 않을까 말이다” 그후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